

KMI

북한해양수산물리뷰

Vol.1
MAR 31 2020

발간년월 2020년 3월 31일(통권 제1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윤인주 담당 진희권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66 FAX +82-51-797-4759

www.kmi.re.kr

목 차

[격려의 글]	1
「북한해양수산물리뷰」에 바란다	
김수암(북한연구학회 회장)	
[기획 칼럼]	2
북한 경제와 남북경협, 그리고 바다	
이석(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동향 분석]	5
2019년 북한 해양수산 동향	
[뉴스 요약]	12
2020년 1분기 북한 해양수산 소식	
[북한 알기]	19
북한의 해양수산 관련 국가기관	
[연구진의 글]	21
- 「북한해양수산물리뷰」의 기획의도와 지향점	
- Inter-Korean Cooperation in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Small Efforts Will Pay Off	



[격려의 글]

「북한해양수산리뷰」에 바란다

김수암 (북한연구학회 회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운·항만정책, 해양정책·해양환경, 수산업 및 어촌정책 연구 분야에서 명실상부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전문성을 가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북한해양수산리뷰」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이번에 창간하는 「북한해양수산리뷰」가 해양수산 분야 북한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정책수립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연구의 지평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북한연구학회 회장으로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북한해양수산리뷰」 창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동안 북한연구는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2000년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확대되면서 북한연구의 지평도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대 남북관계 경색으로 기존의 연구 분야 이외 다른 학문 분과로의 북한연구가 크게 확산·심화되지는 못했습니다. 2018년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 또다시 극적인 봄이 찾아왔지만 안타깝게도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남북한 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조성된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한반도의 봄이 남북관계 진전의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는 날에 대비해야 합니다. 2018년 남북한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면 세부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연구는 북한의 폐쇄적 성격으로 인해 여전히 정보 및 자료의 문제라는 근본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해양수산리뷰」가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는 산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북한의 해양 수산정책 및 법제도, 세부 분야별, 지역별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수집해나갔으면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분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갔으면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해양수산 분야 북한정보 및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 북한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게 기획의 창을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향후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될 경우 「북한해양수산리뷰」를 바탕으로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는 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 추진방안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북한해양수산리뷰」 발간을 계기로 소관연구 분야 북한연구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연구기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획 칼럼]

북한 경제와 남북경협, 그리고 바다

- 새로운 북한 해양수산 연구를 기대하며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바다를 잃어버린 북한과 고립된 북한경제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바다를 잃어버린 나라이다. 남북분단으로 한국경제가 대륙으로의 연결이 차단되었다면, 북한은 경제성장을 위한 해양으로의 진출이 사실상 봉쇄되었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서해와 동해가 한국의 존재 때문에 직접 바다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현대 경제의 발전은 대부분 바다를 통해 이루어진다. 바다는 교역의 무대이며, 선진의 제도와 기술, 관행이 들어오는 통로이고, 새로운 문화와 문명이 교류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대륙으로부터 차단된 한국경제가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나감으로써 한반도 유사 이래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한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회주의 농업 국가의 하나였던 중국이 오늘날의 G2 국가가 된 것 역시 명나라 이후 금지되었던 바다로의 진출을 다시금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과거 북한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주체의 경제로 불리는 고립적 경제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왜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처참한 실패로 귀결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역시 별로 어렵지 않다. 주체의 경제와 관련된 정치사회적 배경은 차치하고서라도, 바다로부터 고립된 북한과 같은 소규모 국민경제가 본격적인 세계경제와의 접촉을 통해 개방과 개혁, 그리고 성장의 계기를 찾는 일은 물리적으로 극히 어렵고, 심지어는 위험스럽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이제까지 외부세계에서 북한의 해양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커다란 주목을 끌지 못했던 이유 역시 쉽게 납득이 된다. 이러한 분야는 결코 과거와 현재의 북한경제를 구성하는 주축도 아니며, 이의 변화를 이끌어온 원동력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미래의 북한경제에서는 어떨까?

북한경제의 발전에 바다라는 개념을 삽입하는 일

만일 북한이 여전히 바다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현대의 경제발전은 여전히 바다로부터 이루어진다면, 북한경제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을 비롯한 북한의 주변국들이 아무리 북한의 발전을 지원하고 격려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발전 경제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원조의 역설'이 암시하듯이 경제발전의 핵심은 결국 지원이 아니라 올바른 발전전략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래의 북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경제에 바다를 되돌려 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북한경제의 발전에 바다라는 개념을 되살려 삽입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대북투자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을 보자.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경제는 지난 70여년 동안 바다라는 개념을 도외시 한 채 유지되었다. 이들에게 바다란 발전과 번영의 계기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침략과 위협의 통로로서 더욱 가깝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설사 미래의 북한이 바다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 TV를 수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더욱 유리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에 수반된다고 느끼는 수많은 비경제적 위험들을 고려하여, 여전히 육로로 중국에 무연탄을 수출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북한에 바다를 통한 발전을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언제나 의문이다.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사정 역시 순조롭지 않다. 예를 들어, 남북경협을 보자. 현재 한국사회에서 남북경협의 재개와 발전을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북한을 매개로 한국경제가 대륙으로 연결되고, 이로 인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실제로 이를 위해 한국과 북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륙이 함께하는 철도 및 도로의 건설과 연결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한국경제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북한경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한국경제의 논리를 그대로 확장하면, 아마도 북한경제에서 남북경협이란 한국경제를 매개로 북한이 바다로 진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해운과 항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한국을 매개로 북한이 미국과 일본,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와 바다로 연결되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재 남북경협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북한적 요소가 전혀 시각에 없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하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경협에 대한 모든 논의가 근본부터 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미래의 북한경제에 바다를 되돌려 주는 일이 머리 속으로는 쉬울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업을 현실에서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북한의 해운, 항만, 수산과 같은 바다와 관련된 외부세계의 연구가 앞으로 보다 새로운 차원으로 더욱 심도 있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외부세계의 연구는 이제까지 주로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미래의 북한경제라는 측면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여기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북한 실태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북한의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으로 연결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바다와 관련된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Forward Looking, 거시적 발전전략과 연동, 새로운 남북경협 시각과 아이템, 데이터와 정보 발굴·축적

무엇보다 먼저 연구 시각의 재조정이다. 다른 어떤 연구 분야와 달리 북한의 해운, 항만, 수산 등 바다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는 이른바 'Forward Looking'하는 연구 시각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현재 북한의 '능력(capacity)'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실태 파악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태가 미래의 북한경제에 얼마나 커다란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는 바다로부터 배제된 과거의 북한경제에서 나타난 수치인 반면, 미래의 북한경제는 바다로의 진출을 발전전략의 기본으로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를 '현재의 능력'이 아니라 '미래에 요구되고 기대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재)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 이러한 Forward Looking 시각은 북한의 해양관련 연구가 한편으로는 자체적이고도 독립적으로 전개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경제 전반의 거시적 발전전략과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상호 규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과거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보면 수출 주도형 발전전략과 이에 따른 해안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그와 병행하는 해운 및 항만 능력의 조정 등 제반 요소들이 모두 하나의 발전 패키지의 형태로 구축되고 실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패키지의 구성 요소들은 각각이 서로를 규정하고 제약하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북한 관련 연구에서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미래에 요구되고 기대되는' 북한의 해양관련 능력은 결국 이러한 북한경제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고, 역으로 이러한 능력이 다시 북한경제의 발전전략을 동시에 제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의 북한 해양관련 연구는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그 자체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는 분야가 될 전망이다.

셋째, 앞으로의 북한 해운, 항만, 수산 등 해양관련 연구는 한국경제가 바라보는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각과 아이템을 제공하는 분야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실제로도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현재 한국사회에서 논의되는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등 제반 경험 아이템들은 모두가 기본적으로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들이다. 반면, 미래의 북한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파악되는 남북경협의 방향성과 아이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해양관련 연구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에 대한 연구는 특성상 미래의 북한 경제발전전략과 매우 직접적이고도 긴밀한 연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향후 북한의 해양관련 연구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 이와 관련된 새로운 데이터와 정보의 발굴 및 축적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경제와 관련해서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고, 이는 북한의 해양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 데이터와 정보의 양과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북한의 항만이나 선박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다양한 위성 정보 및 데이터, 유럽의 (재)보험회사들이 축적하고 있는 북한 선박 관련 데이터, 여러 국제적 해사 기구들이 생산하는 전자 정보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의 북한 해양관련 연구는 결국 기존의 데이터와 더불어 이들 새로운 데이터와 정보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가에 크게 의존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경제발전의 비밀이 모두 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바다를 통해 발전했다는 것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북한의 해양관련 연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북한경제에도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동향 분석]

2019년 북한 해양수산 동향

-「로동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1. 개 관

2019년 북한 해양수산 분야의
중심과제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의 생산토대를
강화하는 것

- 김정은 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수산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물고기잡이와 양어, 양식을 과학화하며 수산자원을 보호증식시켜 수산업발전의 새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언급
- 「로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라는 것을 명백히 천명하시고 농업과 수산, 경공업전선에서 생산투쟁,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
-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내각총리 김재룡은 “축산, 수산부문의 생산토대를 강화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 것”을 결의

2019년 노동신문 해양수산 분야
기사 전수 조사 결과, 양어·양식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어선어업과
간척, 해양관광·친수문화 관련
보도가 뒤를 이었음

- 주민들의 먹는 문제와 관련된 보도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양어·양식 분야 기사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음. 상대적으로 어선어업 분야 보도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으나, 어선어업에서 양어·양식으로 중심 이동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선부름
-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 속에 수산물 유통·가공 분야 보도도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식량 생산을 위한 농지 확보 차원에서 간척 관련 기사의 비중도 높았음
- 김정은 위원장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을 중심으로 해양관광·친수문화 기사의 비중도 높았으며, 최근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정책기조와 함께 해양환경·자원관리 분야의 기사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해운·항만 분야의 기사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이는 북한의 물류가 철도 중심인데다 대북제재로 인해 대외무역이 저조한 현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표 1〉 「로동신문」 해양수산 분야 기사 분류(2019년)

	어선 어업	양어· 양식	유통· 가공	간척	해운 항만	해양 관광·수 문화	해양 환경·수 질관리	기타	합계
1월	-	1	-	5	-	-	2	2	10
2월	2	4	-	7	-	1	-	1	15
3월	-	4	-	8	1	2	10	1	26
4월	-	3	2	3	-	2	2	3	15
5월	1	15	5	6	2	6	2	1	38
6월	3	6	4	-	1	9	4	1	28
7월	3	7	1	4	1	2	5	-	23
8월	8	15	2	5	-	13	3	0	46
9월	2	12	1	1	1	1	-	1	19
10월	2	5	1	1	-	-	1	3	13
11월	17	11	5	-	-	1	1	-	35
12월	6	9	6	-	-	2	4	2	29
합계	44	92	27	40	6	39	34	15	297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표 2〉 「로동신문」 수산업 분야 기사 분류(2015년~2019년)

연도	어선어업	양어·양식	유통·가공	합계
2015년	81	37	3	121
2016년	52	18	1	71
2017년	55	35	1	91
2018년	27	38	10	75
2019년	44	91	27	162
합계	259	219	42	520

자료: 진희권·윤인주, “김정은 시대 북한의 수산정책 연구,” 「해양정책연구」, 제34권 제2호, p.49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통계 보완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의 해양수산 분야 ‘현지지도’는 2번으로 예년에 비해 감소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신창양어장(4.16)과 ‘8월25일수산사업소’와 ‘통천물고기 가공사업소’(11.19 보도)를 현지지도 하였음

〈표 3〉 김정은 위원장의 해양수산 분야 현지지도 횟수(2015년~2019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5	6	3	6	2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II. 분야별 동향

1. 어선어업

어선어업 분야 「로동신문」 보도 비중은 예년과 비슷하나 겨울철 성어기(11월~12월)에 기사가 집중되었으며, 생산 단위 중에서는 '조선인민군 수산사업소', 어종은 도루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김책공업종합대학 선박해양공학부'와 수산성 '신포고기배설계연구소'에서 <황금해-2>호 설계, 건조

최근 북한 언론에서 '강원도정신'이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수산사업소'와 '어구종합공장' 건설

'수산업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조로공동위원회' 제31차 회의 진행

- 어선어업의 특성상 성어기에 보도가 집중되는 현상은 불가피 하지만, 과거에 비해 어선, 어구 등 생산 준비 및 '수산사업소'별 성과 홍보 등의 기사 비중 감소
- 11~12월 어선어업 관련 보도 23건 중 18건은 '조선인민군 수산사업소'의 어획 상황에 대한 기사였음. 해당 보도 중 어종이 언급된 기사는 7건이었으며, 7건 모두 도루묵 어획에 대한 내용이었음
- 2019년 10월 31일부터 동해 전역에서 '도루메기집중어로전투'가 진행되었으며, 12월 7일 현재 '조선인민군 수산사업소'에서 약 14만 톤의 어획량을 기록하였음
- 북한 언론에서 '조선인민군 수산사업소'가 등장한 것은 2013년부터이며, 현재까지 20곳의 '조선인민군 수산사업소'가 확인되고 있음

- <황금해>호는 최근 북한에서 만능어선이라 칭하며 보급하고 있는 어선으로, 「로동신문」의 보도를 종합하면 320~380마력의 엔진 출력에 어군탐지기를 비롯한 탐색 설비와 각종 어구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황금해>호는 2015년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 산하 '홍원조선소'에서 처음 건조되었으며, <황금해>라는 명칭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명명하였음. 이후 여러 '수산사업소'에서 건조, 운영하고 있음
- <황금해-2>호는 기존의 <황금해>호를 계량한 모델로 추정되며, 「로동신문」은 380마력의 만능고기배로 소개하고 있음

- 최근 북한 언론에서는 강원도가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고 있다며, 이를 '강원도정신'으로 보도 하고 있음
- 강원도의 여러 모범 중 하나로 '강원도수산사업소'와 '어구종합공장'이 꼽히고 있음. 「로동신문」은 '강원도수산사업소'를 통천에 들어선 현대적인 수산물 생산 및 가공기지로, 2019년 말 완공되어 2020년 1월 7일 준공식이 진행되었다고 소개. 각종 그물과 밧줄, 양식자재, 잠수복 등을 생산하는 어구종합공장은 2019년 8월 현재 공정의 80%가 진행되었다고 함

- 회의는 러시아에서 진행 되었으며, 북한 수산성 김창도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하였음. 이 회의는 거의 매년 열리는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회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음

2. 양어·양식

양어·양식 분야 「로동신문」 보도는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내수면 양어에 대한 기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2019년 '로동신문'에 보도된 양어양식 분야 기사는 92건으로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내수면 양어에 대한 기사가 64건으로 약 70%의 비중을 차지했음

〈표 4〉 「로동신문」 양어·양식 분야 기사 분류(2019년)

분류	내수면 양어	바다 양식	바다 양어	기타	합계
기사(건)	64	15	10	3	92

김정일 시대 메기 양어를 중심으로 내수면 양어를 강조했던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내수면 가두리 양어장을 중심으로 소규모 양어장 건설을 독려

-메기 양어는 김정일 시대 내수면 양어를 상징하는 어종으로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2019년에는 황해남도에서 '배천메기공장', 평안북도 '운산메기공장', 함경북도 '명천메기종어장', 함경남도 '함흥메기공장' 등이 건설되었음.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소형 메기 양어 못이 만들어졌으며, 논에서 메기를 키우는 '논판양어'도 적극 장려되고 있음

-북한은 2015년부터 내수면에 '그물우리(가두리)' 양어를 적극 장려·확산하고 있으며, 2019년 한 해에만 전국 각지에서 수만m²의 '그물우리(가두리)' 양어 시설이 설치되었음

-메기 외에도 칠색송어(무지개송어), 산천어, 잉어, 기념어(백련어), 룡정어(이스라엘 향어), 뱀장어, 미꾸라지 등의 어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장어(자치), 쏘가리 양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바다양식은 다시마와 미역 등 해조류의 비중이 높으며, 바다양어는 대서양 연어에 관심이 높음

-북한 바다양식 생산 품종은 전복, 해삼, 성게, 굴 및 각종 조개류와 해조류 등이 있으며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 생산 비중이 높음

-바다 양어는 기술과 자재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극히 미미함. 김정일 위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대서양 연어가 소량 생산되고 있으며 명태, 가재미, 보가지(까치복) 치어를 방류하였음

3. 유통·가공

유통·가공 분야 「로동신문」 보도는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으며, 최근 북한은 주민 식생활 향상에 수산업이 직접 기여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김정일 위원장 사망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문서가 평양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문제였으며, 이를 기리기 위해 김정일 위원장 사망일(12월 17일)에 맞춰 평양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수산물을 배급하였음
- 최근 '대경김가공공장'(2012년), '갈마식료공장'(2014년), '금산포젓갈가공공장'(2017년) 등 수산물 가공품 전문 생산시설이 증가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3차례 방문했던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은 평양에 자체 판매점도 운영 중
- 생선과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과 유명 식당을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도 증가하였음

4. 간척

북한은 1980년대 30만 정보(약 3,000km²) 간척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30만 정보 간척을 언급하며 식량 생산을 위한 농지 확보 차원에서 간척에 열을 올리고 있음

- 간척 관련 보도 중 황해남도 '룽매도' 간척지 17건, 평안북도 흥건도 간척지가 11건, 평안남도 안석 간척지가 8건을 차지했음
 - * 개별 간척지 기사의 합계가 전체 간척 관련 보도 건수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의 기사에 여러 건의 공사 상황이 함께 소개된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임
- 황해남도 해주만 어구에 위치한 '룽매도' 간척지는 연평도까지의 거리와 불과 35리(14km)에 불과함. 2011년 1월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2015년 6구역 간척이 완공되었음. 2019년 3월에는 약 3,600정보(약 36km²) 규모의 4구역과 3구역 1차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음
- 흥건도 간척지는 현재 약 5,500정보(약 55km²) 규모의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며, 1단계 공사는 약 900정보(약 9km²) 규모로 2016년 완공되었음
- 안석 간척지 1차 물막이 공사가 2019년 3월 완공되어 약 1,400정보(약 14km²)의 토지가 새롭게 마련되었음

5. 해양관광·친수문화

김정은 위원장의 각별한 관심 속에 국가적 과제로 추진 중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보도가 19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 김정은 위원장은 4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하며 50년, 100년 후에도 손색이 없도록 시공의 질을 최상으로 보장할 것을 강조하며 2020년 '태양절'(김일성 주석의 생일: 4월 15일)까지 완공할 것을 지시
- 김정은 위원장 방문 이후 고층 호텔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돌격대'(공사 인력)가 파견되어 24시간 교대 근무가 진행되는 등 총력전이 벌어졌음

'해양체육월간'(7~8월)을 맞아 관련 보도가 집중되었으며 북한 전역의 해양관광지를 소개하는 기사도 게재

- 북한은 매년 7,8월을 '해양체육월간'으로 지정하여 해양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이 기간 각 학교, 기업소 별 수영 강습, 수영 대회 등이 진행되며, 수영뿐만 아니라 배타는 방법과 수기 신호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음
- 「로동신문」은 북한의 주요 해양관광 자원으로 동해지역 칠보산, 금강산, 원산 마전유원지, 총석정, 시중호 등과 서해지역의 서해갑문, 몽금포, 와우도, 룡수포, 금산포 등을 소개하였음

6. 해양환경·자원관리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등
환경 관련 기사의 비중이 높았으며
해상풍력, 조력 등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소식도 보도

- 기사의 대다수는 세계적인 환경오염 상황과 대응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는 기사였으며, 해양오염 관련 기사는 12건, 지구온난화 등에 관한 기사는 6건 보도되었음
- 해상 풍력, 조력 등 친환경에너지 개발 동향에 대한 기사가 3건 보도되었으며, 북극을 둘러싼 각국의 분쟁을 소개하는 기사도 4건 게재되었음
- 2018년 람사르 협약에 가입한 북한은 습지 및 철새 보호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문덕철새보호구'에서 세계철새의 날 행사도 진행

7. 해운·항만

북한의 지형 및 수송구조와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해운·항만
분야 보도는 6건에 불과 하였음

- 송림항과 남포시를 오가는 수송선을 운영해 이동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켰다고 함
- '륙해운성 항만수상운수관리국'에서는 남포항에 배치할 45톤 '짐함기중기'(컨테이너 크레인)를 자체 개발 중이라고 함
- 신의주 인근 신도군에 화물부두와 여객부두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남포항을 중심으로 남포시 도시 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함

8. 기타

- 북한은 일본이 2018년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고 2019년 7월부터 상업포경을 재개한 데 대해 맹렬하게 비난하며 6건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독도와 관련한 기사도 1건 게재하였음. 소금 생산과 관련한 기사도 4건 보도되었음

III. 시사점

어선어업 분야 보도 및 생산 독려 어조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군부대 수산사업소를 중심으로 성어기(11~12월)에 어로활동을 집중하는 것으로 추정

- 어선어업 분야 보도량 감소는 대북제재 등의 영향으로 북한 경제가 위축된 데 따른 현상으로 보임. 연료 부족 등의 영향으로 어선 가동율이 저하된 것으로 추정
- 한정된 자원을 '조선인민군 수산사업소'를 중심으로 성어기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국영수산사업소'의 경우 목선을 주력으로 연안어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은 과거에도 겨울철 어로 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음. 이로 인해 특정 어족자원 남획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비수기 유휴 인력을 양식 등에 투입하기도 했음

내수면 양어 분야 보도 증가는 어선어업의 생산량 감소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양식 자재와 사료 수급 등의 문제 발생 예상

- 북한은 어선어업 분야의 생산량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내수면 양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시작했음.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후 어선어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으나 최근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다시 내수면 양어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임
- 양식장 자재와 사료는 북한 내수면 양어의 고질적 문제이며,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폐자재 재활용, 천연 사료 및 배합 사료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남북협력사업 추진 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양식 자재, 사료 지원 등의 인도적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통한 남북관광협력의 가능성 높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2020년 3월 현재에도 관광지구 내 녹화 사업 및 내부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추이와 북한의 공사 진척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며, 다각도로 남북관광협력의 가능성과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 최근 환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다양한 남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의 정상은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산림분야 협력을 우선 추진하기로 함
- 해양환경, 습지, 수산자원, 친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실적 여건과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뉴스 요약]

2020년 1분기 북한 해양수산 소식

해양

“해양에너지개발리용을 위한 노력” - 「로동신문」 1월 6일

-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된 《유럽해상풍력에너지전시회-2019》 소식
-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한 세계적 개발 경쟁 및 기술 소개

“수력발전기술의 세계적인 발전동향(1)” - 「로동신문」 1월 9일

- 수력발전의 세계적 추이를 주제로 김책공업전문대학 기계과학기술학부 한성호 부교수, 엄영석 연구사와 기자의 담화
- 화석 연료의 고갈과 환경문제로 인해 최근 자연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수력발전은 생산원가가 적고 24시간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관개용수 및 공업용수 보장, 양어, 홍수 방지, 환경보호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음
- 북한에서는 보통 발전능력이 1만kW이상이면 대형, 1,000~1만kW를 중형, 100~1,000kW를 소형발전소로 규정. 또한 발전능력이 10~100kW이면 극소형, 10kW이하이면 초극소형발전소로 구분.

“수력발전기술의 세계적인 발전동향(2)” - 「로동신문」 1월 11일

- 소형 및 ‘극소형’, ‘초극소형’ 수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 대규모 수력발전소에 비해 미미하지만 산골이나 농촌지역에 계단식으로 설치하면 적지 않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지방의 자체 역량으로도 건설할 수 있음
- 여러 나라에서는 해당 지역 수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력 발전을 진행하고 있음. 산골지방과 같이 낙차가 비교적 크고 ‘물흐름량’이 적은 소형 및 극소형 수력발전소에서는 ‘접선류충동터빈’이나 ‘2중작용충동터빈’과 같은 ‘충동터빈’을 발전기와 일체화시킨 수력발전 장치들을 이용하고 있음
- 저낙차 지역에서는 ‘축류형날개’나 ‘싸보니우스형날개’, ‘다리우스형날개’와 같이 단위 직경 당 물 ‘통과능력’이 크면서도 ‘정격회전수’를 높일 수 있는 수력 터빈을 적용한 수력발전 장치들을 이용
- 산과 강하천이 많은 북한에서는 오래전부터 수력자원을 이용해 전력 문제 해결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일정한 토대도 갖추었음. 최근에는 선진적인 수력발전 기술을 지방의 특성에 맞게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
- 각 지방에서 선진적인 소형 및 ‘극소형’, ‘초극소형’ 수력발전 기술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인다면 경제 활성화와 인민 생활 향상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간석지건설 5개년계획의 첫해부터 승리자의 영예를 떨칠 열의밑에”

- 「로동신문」 1월 12일

-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는 ‘룡매도’ 간석지 건설장에서 일주일 동안 4구역, 3구역 방조제 보강 공사 1만 4천여㎡와 7천여㎡의 장식 공사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둬

“관심을 끄는 띄움식해상풍력발전소”

- 「로동신문」 1월 23일

- ‘띄움식 해상 풍력발전소’ 개발 현황 소개
-향후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전력 생산의 주류를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

“지구온난화로 확대되는 바다속의 《사막지대》” - 「로동신문」 1월 31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다 속 저산소 구역이 확대되며 바다 속 《사막지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바다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음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엄청난 후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

“습지와 생물다양성”

- 「로동신문」 2월 2일

-2월 2일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습지의 생물 다양성 보호 기능 소개
-북한에는 압록강과 두만강, 대동강, 청천강 등 강, 하천이 조밀하고 저수지와 호수, ‘간석지’ 등 습지 생태계가 발달
-북한은 습지 생태계의 조사와 연구, 습지보호구 설정과 관리, 습지 자원의 이용 등 습지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
-철새들의 주요 체류지, 서식지인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철새들의 생태 활동에 대한 연구 및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간석지건설자의 긍지”

- 「로동신문」 2월 12일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다사기계화분사업소’ 소속 자동차 운전사 전광철, 굴착기 운전공 길성철, 김성준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간석지 건설자로 영예롭게 일하고 있음

“불굴의 공격정신으로 조국의 대지를 넓혀간다” - 「로동신문」 2월 13일

- ‘평안북도간석기건설종합기업소’는 흥건도 간석지 2단계 건설과 월도 간석지 2구역 1차 물막이 공사를 공세적으로 진행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있는
용융염” - 「로동신문」 2월 24일

-
-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시 에너지 저장 체계로 ‘용융염’이 관심을 끌고 있음
 - ‘용융염’을 이용한 전기 생산은 원가가 싸고 효율이 좋으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연구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
들어온 소식” - 「로동신문」 3월 11일

-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내부 공사와 ‘원림록화사업’이 진행 중

“장덕도가 변모된다”

- 「로동신문」 3월 20일

-
- 원산 앞바다에 위치한 장덕도가 휴양지로 변모하게 된 과정 소개

“풍부한 바다치료자원”

- 「로동신문」 3월 22일

-
-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바다 ‘감탕*’을 활용한 치료 방법 소개

*감탕: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전에서는 바다의 밑바닥에 있는 진흙을 뜻하는 ‘해니’의 북한어로 소개하고 있음

“높은 목표, 완강한 실천”

- 「로동신문」 3월 28일

-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진행 중인 ‘홍건도간석지’, ‘월도간석지’ 공사 현황 보도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 「로동신문」 3월 28일

-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청강기계화분사업소’의 모범 사례 소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며”,

- 「로동신문」 3월 28일

-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 배치된 제대 군인들의 모범 소개

“안석간석지건설완공의 날을
앞당겨간다” - 「로동신문」 3월 30일

-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 진행 중인 ‘안석간석지’ 공사 현황 소개

수산

“300g으로부터 400g으로”

- 「조선의 오늘」 1월 4일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2014년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중등학교’, 양로원에 물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산사업소가’ 인민군 내에 조직
- 최초 공급 목표는 1인 당 1일 300g이었으나 현재는 400g을 공급하고 있음

“강원도수산사업소 준공식 진행”

- 「로동신문」 1월 7일

- 1월 6일 ‘강원도수산사업소’ 준공식 진행: ‘강원도당위원회’ 위원장 박정남,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채일룡 등 참석
- ‘강원도수산사업소’는 통천군 읍지구 수만㎡의 부지에 건설되었으며, 부두와 ‘냉동고’, 사무청사 등을 갖춘 현대적 수산물 생산시설과 가공기지

“겨울철배수리를 힘있게 내민다”

- 「로동신문」 1월 8일

- ‘서해수산부문’의 각기 ‘수산사업소’에서 겨울철 배 수리를 집중적으로 진행
- ‘평안남도수산관리국’은 겨울철 배 수리 계획의 85% 수행

“인민들이 좋아하고 즐겨찾는 곳”

- 「조선의 오늘」 1월 13일

- 평양 ‘보통문거리’에 위치한 ‘보통문거리고기상점’ 소개
- 상점에서는 각종 육고기와 생선 및 가공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식당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다시마비배관리에 역량을 집중”

- 「로동신문」 1월 16일

- 서해지역 ‘양식사업소’들, 다시마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양식장 면적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흥남대경수산종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10돐 기념보고회 진행” - 「로동신문」 1월 20일

“수산물생산에 이바지하는 기술혁신안들”

- 「통일의 메아리」 1월 28일

- ‘운전수산사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 혁신안을 창안, 도입하여 성과를 내고 있음
- ‘열기구관분사기’를 ‘분사랭각기’로 개조하여 ‘탄매형성시간’을 늘여 연소 효율을 높이고 배기가스 배출을 방지하는 ‘탄매부착저하용열기구관분사랭각기’를 개발
- ‘스라스트베어링’과 변속 기구를 도입해 효율 높은 물고기 하륙기 개발

**“첨단수준의 미세기포발생기를
창안제작”** - 「조선의 오늘」 1월 30일

- ‘수산연구원 수산정보과학기술연구소’에서 미세기포를 발생시켜 양어 못의 수질을 개선하는 ‘미세기포 발생기’를 제작, 도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원평대경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신 10돐 기념보고회 진행” - 「로동신문」 2월 3일

“파바줄을 어구제작에 이용”

- 「로동신문」 2월 5일

- ‘해주어구공장’에서 파(破) 바줄을 재생하여 양식용 자재 및 어구 제작에 활용

“양어사업소건설 적극 추진”

- 「로동신문」 2월 7일

- 강원도 원산시에 ‘양어사업소’ 건설 중

“물고기먹이첨가제연구와 함께

20여년” - 「로동신문」 2월 9일

- ‘생물화학공학’ 전공의 교원 장혜영, 20여 년 간 물고기 먹이 첨가제를 연구해 성과

- 한약재를 이용하여 물고기 성장을 촉진시키고 ‘증체율’과 ‘사름율’을 높였으며, 국산 원료를 이용한 양어 배합먹이 종합 첨가제 생산 방법 연구 완성

“광명성제염소에 새로 꾸린

소금생산공정 조업식 진행”

- 「로동신문」 2월 13일

- 광명성제염소에서는 ‘바다물농축용이온교환막’을 이용한 소금 생산 공정을 새로 꾸려, 2월 12일 조업식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모범적인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 「로동신문」 2월 14일

- ‘원산대흥가공사업소’, ‘흥남수산물생산사업소’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

“올해 첫 소금 생산”

- 「로동신문」 2월 18일

- ‘원산제염소’에서 ‘광명성절’(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맞아 올해 첫 소금 생산

“매일 수백의 다시마 생산”

- 「로동신문」 2월 20일

- 서해의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와 ‘구미포바다가양식사업소’, ‘웅진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매일 수 백 톤의 다시마를 생산하고 있음

“겨울철배수리를 결속한**기새드높이”** - 「로동신문」 3월 1일

- ‘평안남도수산관리국’ 산하의 ‘문덕수산사업소’, ‘평원수산사업소’, ‘가마포수산사업소’, ‘문덕태향수산사업소’ 등에서 겨울철 배 수리를 마치고 출어 준비를 다그치고 있음

“〈바다 만풍가〉의 고향에 넘치는**신심과 량만”** - 「로동신문」 3월 5일

- 2019년 12월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 ‘예술소조’의 공연에 대한 일화 소개

“폐산물로 양어영양먹이첨가제를”

- 「로동신문」 3월 12일

- ‘국가과학원 국가균주보존연구소’에서 닭, 오리 등 가금류의 ‘폐산물’을 활용한 양어 ‘영양먹이첨가제’를 개발하여 적극 도입하고 있음

“김재룡동지 인민경제 여러 부문**현지료해”** - 「로동신문」 3월 15일

- 내각총리 김재룡, ‘령남배수리공장’ 현지료해

“수십정보의 바다가양식장 새로**조성”** - 「로동신문」 3월 16일

- ‘김책대경수산종합기업소’에서 수 십 정보의 바다 양식장 새로 조성

“얕은바다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 「로동신문」 3월 16일

- ‘청진수산사업소’에서 바다 양식장 확장, 인공어초 조성, 인공 배양장 확대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음

“대용자재를 리용하니 얼마나**좋은가”** - 「로동신문」 3월 16일

- 함경남도 ‘호도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목재 대신 플라스틱 등의 대용 자재를 활용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있음

“근기있게 내밀어야 좋은 결실을**볼수 있다”** - 「로동신문」 3월 16일

- 평안남도 ‘가마포수산사업소’, 바다 양식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음

“경제적 실리가 큰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자”

- 「로동신문」 3월 16일

- 과학 기술은 바다 양식 발전의 담보라고 강조하며 ‘경포재배어업사업소’의 실례 소개

“인민의 행복에서 보람을 찾으시며” - 「로동신문」 3월 22일

- 2018년 8월, 김정은 위원장의 ‘금산포젓갈가공공장’ ‘현지지도’ 일화 소개

“행복한 <고민거리>”

- 「로동신문」 3월 23일

- 김정은 위원장 수산사업소 ‘현지지도’ 관련 일화 소개

“높은 이상과 완강한 실천은 발전비약의 확고한 담보이다”

- 「로동신문」 3월 24일

- ‘성천강출하사업소’의 기술혁신과 생산력 확대 사례 소개

“서해자구의 바다가양식장들에서 다시마생산 한창”

- 「아리랑 메아리」 3월 24일

- 서해 부포, 구미포, 웅진 ‘바다가양식사업소’의 다시마 생산 현황 소개

“바다에서 기초식품원료 보장”

- 「우리민족끼리」 3월 25일

- 신포시에 자체로 ‘섭조개(홍합)간장’ 생산 공장을 건설, 생산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좋은 다시마영양알 제조”

- 「통일의 메아리」 3월 27일

- 수산 부문 연구사들, 다시마를 이용한 영양제 개발

“금산포특산물에 깃든 다심한 사랑” - 「로동신문」 3월 29일

- 김정은 위원장의 ‘금산포젓갈가공공장’, ‘현지지도’ 관련 일화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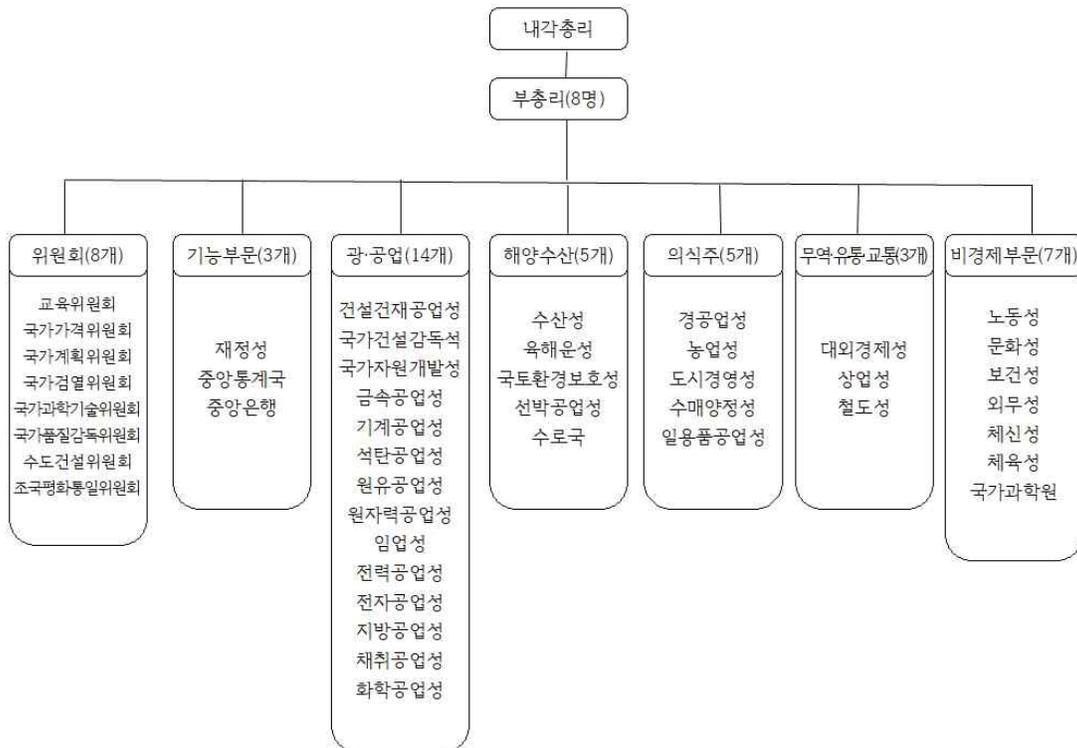
[북한 알기]

북한의 해양수산 관련 국가기관*

한국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북한의 조직은 내각이다. 북한의 헌법에서는 내각을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수립,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보충, 인민경제발전 계획 수립과 실행, 국가예산 편성과 집행 대책 수립,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 수립, 다른 나라와 조약체결 및 대외사업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각은 197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정무원으로 변경되었으나, 1998년 헌법 개정 시 내각으로 재변경됐다.

행정기관인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우리의 장관에 해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5년이다. 2019년 현재 8개 위원회, 35개 성, 3개 국, 1개원과 1개 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은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및 경제 관련 사업을 관할하며 내각 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내각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위의 35개 성 중 해양수산 관련 부처는 수산성, 육해운성, 선박공업성, 국토환경보호성이 있다.

〈그림 1〉 북한 내각 조직도



*자료: 「북한 권력기구조」, 통일부, 2018. 12의 자료를 바탕으로 박영자 외, 앞의 글의 분류를 참조하여 필자 보합

*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8)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였음.

수산성(Ministry of Fisheries)

북한의 수산성은 수산업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수산업 전반을 관리, 통제하고 있다. 수산상과 부상(2018년 현재 5명으로 추정)들 아래 각 생산 단위와 생산 방법에 따른 지도 조직이 망라되어 있다. 수산성 산하에는 계획국, 물고기 공급국, 국제협력국, 바다가양식국, 양어관리국, 가공수출생산지도국, 수산연구원 등이 있다. 각 지역 생산시설은 조직 형태에 따라 국영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국영수산사업소는 각 도별 수산관리국에서, 수산협동조합은 각 도별 협동수산경리위원회에서 지도·관리하고 있다.

육해운성(Ministry of Land and Maritime Transport)

육해운성은 북한의 항만 및 해운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항만, 해운뿐만 아니라 육상의 도로 수송도 관리하고 있다. 북한 내각에서 운송,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철도성과 육해운성이다. 따라서 철도를 제외한 육지, 바다, 강을 통한 모든 운송은 육해운성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육해운성 산하에는 수송생산총합국, 자동차관리국, 자동차운수관리국, 항만수상운수관리국, 항무감독국, 갑문관리국, 외국선박사업국, 해운연합총국, 해운설계사업소, 해운과학연구소 등이 있다.

국토환경보호성(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국토환경보호성은 국토환경보호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고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상설 부서가 조직된 것은 1996년 정무원 산하에 '국토환경보호부'가 설치되면서 부터이다. 1998년 정무원이 해체되고 내각이 조직되면서 '도시경영부'와 통합되어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으로 개편되었으나 1999년 다시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분리되었다. 국토환경보호사업이란 토지정리를 비롯한 도로, 하천, 해양, 산림, 자연보호 등 국토의 개발과 보호관리사업의 총체를 의미한다. 국토환경성 산하에는 산림총국, 강하천관리국, 과학기술국, 대외협력국, 도로관리국, 자원보호감독국, 해양국, 환경보호국 등이 있으며 국토계획연구소, 도로설계사업소, 중앙산림설계기술연구소, 산림연구원, 환경과학기술연구원, 중앙양모장 등이 있다.

선박공업성(Ministry of Shipbuilding)

선박공업성은 2019년 제 14기 1차 최고인민회의(2019.4.11~12)에서 신설되었으며 초대 선박공업상에는 강철구가 임명되었다. 과거 정무원 산하에 선박공업부가 있었으나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내각이 조직되면서 폐지되었다. 선박공업부가 폐지되고 관련 업무는 북한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에 이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선박공업성 신설은 수산, 해운 등 비(非)군사적 선박 수요 보장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의 주요 조선소는 동해 지역에 청진조선소와 원산조선소, 서해 지역에 남포조선소 등이 있다.

수로국(Hydrographic Department)

북한의 수로국은 바다와 하천, 강 전역에 대한 수로조사와 수로자료의 출판과 이용, 시설물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의 수로법에서는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수로기구(IHO)는 북한 수로국장(National Hydrographer or equivalent)을 이인섭 제독(RAdm* REE In Sop)으로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도 권한이 내각에 있다하더라도 실제 북한 수로국은 해군 소속인 것으로 추정된다.

* Rear Admiral 해군 소장

[연구진의 글]

「북한해양수산리뷰」의 기획의도와 지향점

정권 교체나 체제 붕괴 같은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논하던 시절도 있었다. 물론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단정할 수 없지만, 세계3대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그의 저서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에서 자신을 역사연구가로 칭하며 한국만큼이나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다. 그의 말을 인정한다면, 어떤 강대국도 쉽게 바꿀 수 없는 각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우리는 통일이 아니라도 적어도 살을 맞대고 접경한 상태로 북한과 더불어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북한과 협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은 아직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일종의 가치 판단 문제이므로 옳고 그름을 재기는 어렵겠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 대처 능력이다. 북한과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론(公論)이 형성되면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그렇다면 협력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론이 형성된 시기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아무 것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편을 택했다고 본다. 그래서 다시 협력을 하자는 공론이 형성된 최근에는 마치 악보의 되돌이표를 따라가듯이 과거 어떤 시기로 돌아가서 반복하는 형국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생긴 것이다.

북한해양수산리뷰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착안했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종속되고 북미협상에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남북 간에도 할 일이 있다는 갇힌 사고, 통일은 먼 이야기일 뿐 현실에 산적한 다른 문제가 충분히 많다는 관심 부족, 북한의 폐쇄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발목이 잡히는 정보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남북협력은 구상만 한 상태에서 답보했고 10년 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전략적 접근은 부재하고 각자 그리는 작은 그림에 안주해왔다. 그 결과, 북한 정보나 접근 가능성을 주변국과 국제기구에 의존해야할 때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한 것 같은 생각에 마음 한 편이 육신거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연구는 타 분야에 비해 연구 기간이 짧아 축적된 연구가 많지 않고 정보의 제한성이 크다보니 거시적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각 분야의 미시적 연구로 발전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현실적인 문제를 쪼개어 분야별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떨까? 예컨대 20년을 내다보는 국토종합계획처럼 해양수산 분야에서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관계를 맺을지 고민해보면 어떨까? 마치 큰 규모의 다리나 건물을 세울 때 개념설계를 하는 것과 같은 장기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북한해양수산리뷰는 이러한 개념설계에 필요한 플랫폼을 지향한다. 관련 연구자, 정책 입안자, 사업자 등이 구독하거나 투고함으로써 해양수산 남북협력의 개념설계에 접근하는 동시에 기여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시의 적절하고 흥미로운 전문가칼럼, 북한 해양수산 동향 분석과 뉴스 요약, 북한 알기 코너를, 장기적으로는 (소)논문과 세미나 결과 공유, 국내외 연구 소개, 독자의견 투고 및 질의응답 코너를 준비한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KMI는 이 플랫폼에서 수집된 자료를 정보로 가공하고 정책으로 뽑아내어 관련 부처에 전하고자 한다.

초반에는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자칫 스팸차단이 되기 십상인 대용량 메일링으로 시작할 것이다. 북한해양수산리뷰가 가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대내외에서 확인되는 대로 성가신 메일링은 중단하고자 한다. 이때부터는 관심 있는 분만 KMI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 부디 독자께서 1년에 4번 받을 메일을 당분간 너그럽이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KMI 연구진은 자료가 넘쳐 나는 이 시대에 무가치한 자료 생산으로 자원 낭비를 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매 발간물에 정성을 다 하는 것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혹 내용상에 오류가 있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 연구진에 연락주시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이를 통해, 발전하는 한반도 상황에 따른 시대적 과제와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KMI 연구진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 Small Efforts Will Pay Off

An Eventful but Un-predictable 2020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proclaimed its bracing for “long-term confrontation” with the U.S. during an unusual four-day party plenum held during December 28 to 31, 2019. Kim Jong-un, Chai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clarified a “frontal breakthrough” strategy while requesting North Korean people to resume their belt-tightening for self-reliance.

South Korea is facing the 21st legislative election on April 15 and the United States’ presidential primaries and caucuses are now underway. One of the two geographically and economically nearest neighboring countries of Korea is preparing to hold the Olympic Games in Tokyo, while the other is in a combat against the coronavirus epidemic, which is believed to have started in its territory. Many expected a unified Korean team to represent the peninsula for the Tokyo Olympic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state visit to South Korea, and celebration of 30-years of bilatera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etc. for this year. However, in the wake of the coronavirus outbreak, which has become a pandemic now, none of these are clearly expectable.

Things Achieved Since 2018 and Ways to Move Forward

According to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2018, Moon Jae-in, President of South Korea and Kim Jong Un,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North Korea agreed to discuss the issue of forming a west coast joint special economic zone and an east coast joint special tourism zone. Both Koreas commit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maritime peace zone, a pilot joint fishing zone in the West Sea and the construction of a plan regarding issues related to permitting the Haeju Passage and Jeju Strait for North Korean vessels, as well as the conception of military assurance measures for the shared use of the Han River (Imjin River) Estuary on its Military Agreement. What actually has been carried out was a Joint Hydrographic Survey of Han River Estuary at the end of 2018. South Korea’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livered charts newly composed based on the survey to the North in the beginning of 2019. The two Koreas agreed to open the Estuary to civilian ships in April, which has since hit a wall due to the no-deal Hanoi Summit between the North and the U.S. in February, 2019.

What is the Matter? What Do We Have to Do?

After the Hanoi Summit, the North realized that a negotiated settlement with the U.S. in its favor is hardly accomplishable. Therefore, it would take neither conversation nor provocation in a decisive manner for the time being, as predicted in its New Year message for 2020. Moreover, the U.S. also would not add further engagement unless it was necessary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n what can we expect ahead for the South? South Korea is the one who has to endure the atmosphere between the North and the U.S., which can result in unidentified projectiles being fired off the Korean Peninsula by the North.

The main hurdle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is situation is the North's unresponsiveness. Only if it helps with bargaining power over the U.S. or a belt-tightening economy, would the North come to the table. The problem is that we do not have such ideas. We have not been able to put our efforts to design inter-Korean cooperation agenda in such a deliberate and sophisticated way. Although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and the Military Agreement mentions many kinds of projects, and a year and a half has passed since that day, we still do not have detailed outlines for the projects.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is no exception.

A New Project Initiative by Korea Maritime Institute

Here is a small but meaningful contribution by the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has been reviewing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of North Korea for about the last ten years and published its findings as a compact report last year. From this year, we are going to publish a quarterly newsletter or magazine, tentatively named the "North Korean Maritime Review". It will include a well-timed column, analysis of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and a major news summary over the latest three months, and some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North's sea and coastal areas. We hope that this will become an information platform on which policy makers, businesspersons, and scholars are able to access and contribute to the conceptual design for the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In order to maximize maritime and fisheries cooperation beneficial to both Koreas, we need to save time. It is already spring. Time is running out.

[알려 드립니다]

「북한해양수산리뷰」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소)논문, 칼럼 투고
 - 주제: 북한 해양수산 및 남북 해양수산 협력
 - 분량 및 형식: (소)논문의 경우 A4 10매 내외, 칼럼은 A4 2매 내외 이며, 형식은 자유
(단, 게재 시 연구진과 협의 후 조정)
 -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독자의견 및 Q&A
 - 독자의견: 500자 내외의 「북한해양수산리뷰」에 대한 소감, 자유 형식
 - Q&A: 북한 해양수산 및 해양수산 남북협력에 대한 질문, 형식 및 분량 제한 없음
(연구진에서 질문을 선별해 다음 호에 Q&A 코너를 통해 답변)
 - 게재 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독자 투고 및 의견, 질문 보내실 곳: nkreview@kmi.re.kr